

4) 부도(浮屠)

(1) 선암사 대각암부도(大覺庵浮屠)

이 부도는 선암사 4암 가운데 하나인 대각암 뒤편 언덕에 위치하는데 전형적인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을 따르고 있다. 기단부의 중대석과 탑신석의 위치가 바뀌고 상대석도 거꾸로 놓여 있었는데 최근에 해체, 복원하여 바로잡았다.

방형의 지대석 위에 8각의 높직한 괴임이 조출되고 각 면에 안상(眼像) 1구씩이 장식되었다. 하대석은 하단에 굽형을 돌리고 측면에는 구름문양을 장식하였으며, 상면에는 2단 괴임을 조출하여 중대석을 받고 있다. 중대에는 하단에 반전 괴임과 굽형 괴임, 복련 등이 장식되고 그 위의 중대 각 면에는 1구씩의 안상이 장식되었다. 상대석은 2단의 받침이 있고 8판(瓣)의 양련이 돌려졌으며, 상면에는 3단의 괴임을 마련하여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은 각 면에 양 우주(梁)가 모각되고 전·후면에는 문비와 자물통이 조각되어 있다. 평부한 8각의 옥개석 낙수면에는 굽직한 우동마루가 표시되었으며 전각에는 큼직한 귀꽃문이 장식되어 있다. 상륜부는 양화와 보륜, 보주 등이 차례로 놓여 있다.

이 부도는 기단부의 안상과 운문, 연화문 등의 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반기의 건조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것은 특히 옥개석의 귀꽃문에서 더욱 느낄 수가 있다. 1992년 1월 15일에 보물 제1117호로 지정되었다.

(2) 선암사 선조암지부도(禪助庵址浮屠)

이 부도는 대웅전에서 북쪽으로 약 400m 거리에 떨어진 산기슭에 있다. 전체 높이 2.4m로 팔각원당형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부도이다. 8각형의 지대석 위에 높직한 괴임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그 위 하대석에는 태조(太彫)의 운문을 가득히 돌렸다. 상면에는 널찍한 홈을 파놓았으며, 그 중앙에 반전이 있는 높직한 괴임대를 마련하여 중대를 받고 있다. 중대석은 고복형으로 이루어져 상대까지 1석인데 하단은 반전 받침으로 줄어들고 측면은 4엽문의 장식이 있다. 상대는 큼직한 8판의 양련대인데 상대 상면에는 1단의 굽형 괴임과 복련대가 있으며 이 위에 2단의 괴임을 조출하여 탑신석을 받고 있다. 탑신은 각 면에 양 우주(梁)가 모각되고 전·후면에는 문비 내에 자물통이 있으며 전면 좌·우측면에는 인왕상(仁旺像)을 배치해놓았다. 평부한 8각 옥개석 낙수면에는 함각선이 뚜렷하고 그 전각에는 큼직한 귀꽃문이 장식되어 있다. 상륜은 양화·보륜·보개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이 부도는 기단부의 사자상과 구름문양, 특히 연화문과 인왕상의 조각, 각 부의 양식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반기의 건조물로 추정된다. 부도의 주인공은 도선국사라고 구전되고 있지만 조성시기가 고려 초기인 점으로 보아 믿기는 어렵다. 선암사 북부도라 이름하여, 1993년 11월 19일에 보물 제1184호로 지정되었다.

(3) 선암사 무우전부도(無憂殿浮屠)

별전(別殿)인 무우전 바로 뒤에 비전(碑殿)이 있으며, 이곳에서 능선을 따라 약 200m 올라 가면 한적한 곳에 부도 1기가 있다. 주위 여러 상황으로 보아 원위치로 생각되며, 각 부재가 완전하여 다행스럽다. 전체 높이 3.2m의 팔각당식 부도인데 1매석의 8각 지대석 상면에 괴

입단을 마련하고 안상 괴임대를 높직하게 조출하여 하대석을 놓았고, 하대에는 구름문양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상면에는 반전형의 괴임 1단을 조출하여 중대석을 받치고 있다. 중대와 상대는 동일석인데, 중대석에는 상단부에 파상문이 있고 상대석에는 큼직한 양련 8판이 장식되어 있다.

탑신석은 상단이 좁아진 엔타시스형이고 하단에는 높직한 괴임단이 있다. 각 면은 장방액(長方額)으로 소박하게 마무리되었고, 전면에 문비형을 모각하여 내면에는 봉황과 그 좌·우에 인왕상을 조각하였다. 뒷면은 문비에 문고리를 장식하고 있다. 옥개석은 하면에 2단의 받침이 있고 평부한 낙수면의 8각 우동마루 끝의 전각에는 귀꽃문이 장식되어 있다. 상륜부는 양화와 보개·보륜·보주 등이 차례로 놓여 있다.

이 부도는 팔각당식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 구름과 연꽃문양 등의 조각이나 전체적인 각 부 조성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반기의 우수작이라 하겠다. 선암사 동부도라 이름하여 1993년 11월 19일에 보물 제1185호로 지정되었다.

(4) 송광사 자정국사부도(慈靜國師浮屠)

불일암(佛日庵)은 본래 자정암(慈靜庵)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자정국사가 주석하였고 또한 국사의 부도가 이곳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불일암의 동쪽 언덕에 석축을 쌓아 대지를 마련하고 5.9×4.15m의 탑구를 정하고 그 중심에 부도를 건립하였다. 전체 높이 2.23m로 팔각원당형을 따르고 있다. 높직한 방형의 3단을 중적하고 기단부를 형성하였는데, 팔각의 하대에는 큼직한 복련 8판을 돌리고 원형의 중대석 위에 원형 상대를 놓았으며 상대에는 16판의 양련을 장식하였다. 8각의 탑신에 별다른 조각이 없고, 정면에 “자정국사묘광지탑(慈靜國師妙光之塔)”이라 음각되어 있어 주인공을 알 수 있다. 평부한 8각의 옥개석에는 기와꼴과 우동마루가 표시되고 8우 전각에는 귀꽃문이 장식되었다. 상륜부는 보륜과 보주 등이 갖추어져 있다. 기단부의 구성과 각 부의 조각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5) 송광사 진각국사부도(眞覺國師浮屠)

전체 높이 2.27m로 높직한 2단의 방형 지석(地石) 위에 건립되어 있는데 원형 지석을 중적한 하대 위에 16판의 단엽양련이 둘러진 하대석을 놓아 탑신을 받치고 있다. 8각의 탑신석 각 면에는 정면의 장방액 내 “진각국사원조지탑(眞覺國師圓照之塔)”이라는 명(銘)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인왕상을 배치하고 나머지 면에는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두툼한 8각 옥개석은 하면에 홈이 파여 있고 또한 낮은 받침 1단이 있으며 낙수면에는 우동마루가 뚜렷하고 8우의 전각에는 귀꽃문이 장식되어 있다. 상륜은 보개와 보륜, 보주 등이 장식되어 있다. 이 부도는 각 부의 구성과 조각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반기 건립으로 추정된다. 이 부도 밑에는 넓은 대지가 있어 암자터라고 하는데, 약 30년 전에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6) 송광사 자각국사부도(慈覺國師浮屠)

일명 감로암(甘露庵)부도라고 한다. 전체 높이 2.45m로 3단의 방형 지대 위에 건립하였다. 팔각원당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8각 하대석의 하단에 굽을 돌리고 큼직한 8판의 복련을

장식하였다. 중대와 상대는 동일석으로 조성하였는데 8각의 중대석에는 8우에 연주문주형(連珠紋柱形)이 모각되고 원형의 상대석은 2단의 받침과 8판 양련을 조각하였다. 8각의 길쭉한 탑신에는 별다른 조식이 없고 정면에 “자각국사징령지탑(慈覺國師澄靈之塔)”이라는 음각명이 있을 뿐이다. 옥개석은 평부한데 하면에 받침이 있고 낙수면에 기와꼴과 8우의 귀꽃문이 있다. 상륜은 1석으로 조성하였으며 노반과 보륜, 보주 등이 장식되었다. 기단부의 구성과 각 부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반기에 건립한 부도로 추정된다.

(7) 송광사 청진국사부도(淸眞國師浮屠)

전체 높이 228m 로 높직한 3단의 방형 지대 위에 건립하였는데 원형의 하대에는 복련 13판이 둘러지고 상면에 원형 괴임 1단을 조출하여 고북형 중대 1석을 받치고 있다. 원형의 상대석은 하면에 1단 받침이 있고 단엽중판의 양련 13판이 장식되어 있다. 8각 탑신에는 별다른 조식이 없고

정면에 “청진국사적조지탑(淸眞國師寂照之塔)”이란 음각명이 있어 부도의 주인공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하면에 낮은 받침 4단과 널찍한 받침 2단이 있고 낙수면의 합각은 뚜렷하며 8우 전각의 귀꽃문은 형식화되었다. 상륜은 정상에 1석이 놓여 있을 뿐이다. 이 부도는 기단부의 구성과 연화문의 조각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반기의 건조물로 추정된다.

(8) 송광사 원국사부도(圓國師浮屠)

전체 높이 235m 로 일명 동암(東庵)부도라고도 칭한다. 높직한 2단의 방형 지대석 위에 건립하였는데 8각 하대석에는 굽형 2단을 돌리고 복련 16판을 장식하였다. 중대와 상대는 동일석인데 중대석은 낮은 고북형이다. 원형의 상대에는 양련 16판을 돌리고 8각 탑신에는 별다른 조식 없이 정면에 “원국사지탑(圓國師之塔)”이란 주인공액이 있다. 옥개석은 하면에 2단의 받침이 있고 서까래가 표시되어 있다. 낙수면에는 기와꼴이 표현되었고 8우의 우동마루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귀꽃문은 없다. 상륜은 1석으로 조성하였는데 복발·보륜·양화·보주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기단부의 구성과 옥개석 등 명부의 양식과 조각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반기의 건조물로 추정된다.